

## 농촌여성의 생활실태분석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 정 인 · 박 응 임 · 이 혜 상<sup>1)</sup> · 안 건 미<sup>2)</sup> · 정 운 선<sup>3)†</sup>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sup>2)</sup> · 안동대학교 의류학과<sup>3)</sup>

###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Women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Life Satisfaction

Bae, Jeong In · Park, Ung Im · Lee, Hye Sang<sup>1)</sup> · Ahn, Geun Mee<sup>2)</sup> · Jeong, Woon Seon<sup>3)†</sup>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sup>1)</sup>  
Dep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sup>2)</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sup>3)</sup>

#### ABSTRACT

As rural life has shifted with the long term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women. 70 questionnaires in health, clothing, food, shelter, economic conditions and child-rearing fields were used for a survey of 393 rural women from five rural areas in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sangbuk-Do. Statistical techniques of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hrough 'SPSS Statistics 21.'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with Group A with income less than 15 million won, Group B with income of at least 15 million won and less than 30 million won, and Group C with at least 30 million won. For th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conditions, Group C showed higher scores than Group A. The food security status of rural women in the research area was worse than that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food consumption by Group C was higher than that of Group A and Group B. For the satisfaction of kitchen, bathroom facilities and heating system, the income of 15 million won seemed to be the divisive value where richer groups were more satisfied. Job satisfaction seemed more related with the income amount rather than with the job itself. The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aring satisfaction were higher for Group C than for Group A. Determinants of lif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2013 Research Fund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 2013년 8월 25일 심사일: 2013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Jeong, Woon Seon Tel: 82-54-820-5501

e-mail: [wsj@anu.ac.kr](mailto:wsj@a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health conditions, heat susceptibility, fruit consumption, kitchen unit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rural women, life satisfaction, average annual income

## I. 서론

한미 FTA 체결 및 시행, 그리고 한중 FTA 체결 노력 등 한국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생활 역시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생활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Ko et al. 2005; Park 2005; Choe 2006)에서는 농촌가구 전체로는 가전제품 및 자가용, 농기계 소유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생활수준은 절대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농촌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이 분담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일 참여정도가 증가하여 피로 및 신경통, 관절염등과 같은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생활지표조사 보고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의하면 부엌이나 목욕탕 등 거주시설의 신설 및 교체로 농촌지역의 거주 성능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또한 1998~2010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곡류 섭취량은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류, 우유류, 음료 및 주류 등의 섭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생활이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여성의 생활실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농촌여성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평가된 농촌여성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결과는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통해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촌여성 복지 지표에 관해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한열경제사업연구원(1999)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

업인의 경제생활, 농업노동, 보건·복지, 교육 부문 실태 및 요구, 지역 활동 및 남녀평등의식,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다루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Park et al. 2002)는 경제활동, 교육, 보건·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정보, 정치·사회참여, 안전 등의 7개 복지부문에서 총 90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내용에 비하여 조사결과와 해석은 상당히 피상적이어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한편 농촌여성의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Choe 2006)에서는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시설 지원요구 중 영농지원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지원, 노인지원 요구의 순이며 자녀관련 지원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여성들의 영농지원과 여성능력개발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원요구가 노인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요구보다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농촌여성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건강,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및 자녀양육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건강과 의생활에 관해서는 농촌주민의 착의실태를 조사한 Jeong(1991)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착의량으로 판단한 계절적응 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의복에 의한 계절적응 여부 및 농작업과 관련한 의생활에 관해 파악하는 것은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식품안정성과 식품섭취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농촌 여성의 식생활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품안정성은 의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Anderson 1990), 식품안정성 측정은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05년 이후 식품안정성 조사 방법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식생활 형편에 대해 묻는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영양소 섭취, 식사의 다양성, 식사의 질적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식품안정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한다(Shim et al. 2008). 한편 식품안정성은 소득, 식비와 상관성이 있으며(Rose 1999; Kwon & Oh 2007), 상대적으로 식품 가격에 민감한 과일류, 육류, 유제품류의 섭취가 영향을 받으므로(Kim et al. 2011), 응답자의 식품안정성평가에 이들 식품군에 대한 섭취 빈도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생활에 관해서는 농촌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Han et al. 2009) 결과, 세대내 설비 교체 등의 거주 성능 개선에 관한 요구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만족도가 전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주거시설에 관한 만족도 정도가 농촌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농촌여성의 경제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수치의 소득 및 생활비 수준이 농촌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아울러 농촌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득, 소비, 직업만족도 역시 농촌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Park et al. 2002).

한편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 중 자녀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Choe 2002), 부모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양육과 연관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Ahn 2001).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만족감을 갖게 되며, 자녀는 부모에게 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준다(Yang 2004)는 점에서 볼 때, 과거 또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효능감은 농촌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건강, 의

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및 자녀양육 분야에서 농촌여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와 관계로 알아봄으로써, 농촌여성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북 북부 소재 5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의·식·주, 자녀양육, 경제분야의 7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에 안동지역 농촌거주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을 보완하여 201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안동, 영양, 의성, 청송, 봉화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농촌여성생활교양프로그램 실시장소에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농촌여성과 접촉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방문조사의 회수율은 99.2%로서 252부 중 250부가 회수되었으며,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의뢰한 설문지 회수율은 80.5%로서 185부 중 149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399부 중 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한 총 3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설문 문항의 일부는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201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일부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또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중 농촌생활 전반에 관련된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귀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

음’,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으로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추위 또는 더위와 의복행동과 관련된 문항은 총 4문항으로서 2개의 하위영역(추위민감, 더위민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위민감은 “나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다”와 “나는 겨울에 옷을 많이 입어도 춥다고 느낀다”의 2문항이고, 더위민감은 “나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다”와 “나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어도 더위를 못 참는다”의 2문항이다. 추위민감과 더위민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74와 .79였다.

식품안정성 조사 방법은 2005년 이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식생활 형편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고기·생선·계란·콩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에 대한 식품 빈도조사는 ‘거의 안 먹었음’에서 ‘하루 2번 이상’까지 8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주거에 관한 문항들은 주택외형, 부엌, 목욕시설, 현재 및 희망 난방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농촌여성의 생활비수준 관련 문항은 월 50만원 미만부터 월 3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간격으로 7단계로 구분하였고, 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은 Lee(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효능감 척도 중 전반적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자녀의 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는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SPSS Statistics 21’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ANOVA, t-test, 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제시한 항목 중 연령, 학력, 직업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식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소득수준별 차이는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식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응답대상자의 수가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의 3그룹이 비슷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의 3그룹으로 나누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escriptive variables	
Age (years)	
< 50	139 (36.1) <sup>1)</sup>
50~59	138 (35.8)
≥ 60	108 (28.1)
Academic background	
≤ Elementary school	65 (17.6)
Middle school	96 (26.0)
High school	131 (35.5)
≥ College	77 (20.9)
Job status	
Farmers	201 (52.5)
Full time homemakers	126 (32.9)
Service and sales persons	22 ( 5.7)
Others	34 ( 8.9)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 1,500	115 (29.9)
1,500~3,000	144 (37.5)
≥ 3,000	125 (32.6)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Height (cm)	158 ± 5 <sup>2)</sup>
Body weight (kg)	58 ± 7
BMI <sup>3)</sup> (kg/m <sup>2</sup> )	23 ± 3

<sup>1)</sup> N(%)

<sup>2)</sup> Mean±SD

<sup>3)</sup> Body Mass Index

다중비교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응답자의 일반 사항

Table 1에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이는 평균 53±10세(평균±표준편차)였고 50세 이상이 64%를 차지하여 농촌 여성의 고령화를 나타내었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43.6%로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5.5%, 전문대졸 이상이 20.9% 순이었으며, 이들 중 52.5%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소득그룹별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1,500만원 미만인 29.9%,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7.5%, 3,000만원 이상은 32.6%로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신장은 158±5cm, 평균 체중은 58±7kg,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3±3kg/m<sup>2</sup>이었다.

#### 2.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

Table 2는 전체 응답자들의 생활만족도와 전반적인 건강상태, 추위 및 더위에 대한 반응을 가구당 연평균소득 그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생활만족도(p<.05), 전반적인 건강상태(p<.01), 더위에 대한 반응(p<.01)에서 그룹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추위에 대한 반응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활만족도는 연평균 소득 3,000만원 이상그룹이 1,500만원 미만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경우가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연평균소득 1,500만원 미만그룹이 1,500만원 이상그룹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적음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추위와 더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추위를 탄다고 응답했으나, 더위에 대해서는 1,500만원 미만그룹이 1,500만원 이상그룹에 비해 더위를 더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냉방시설 관련 조사를 하지 못해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분석이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 실내 냉방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사일에 적합한 별도의 작업복은 응답자의 15.8%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착용의 이유는 낡은 옷을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 40.7%, 귀찮거나 불편하기 때문이 7.4%, 덥기 때문이 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고 벗기 편하면서도 농사일에 적합한 작업복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3. 식품안정성과 식품섭취 빈도

식품안정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14.7%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또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고, 56.0%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기 어렵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9.3%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Shim

Table 2.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Descriptive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F value
	<1,500	1,500~3,000	≥3,000	
Life satisfaction	3.19±0.85 <sup>1),2)a</sup>	3.36±0.87 <sup>ab</sup>	3.50±0.89 <sup>b</sup>	3.759*
Health condition	2.86±0.88 <sup>a</sup>	3.10±0.87 <sup>b</sup>	3.26±0.81 <sup>b</sup>	6.648**
Cold susceptibility	3.31±0.93	3.21±0.89	3.24±0.96	0.376
Heat susceptibility	3.31±0.85 <sup>a</sup>	3.06±0.86 <sup>b</sup>	2.94±0.78 <sup>b</sup>	5.592**

<sup>1)</sup> Mean±SD

<sup>2)</sup>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ot sure, 4: agree, 5: strongly agree

<sup>a,b</sup>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5 by a Duncan post-hoc test

\*p<.05, \*\*p<.01

et al.(2008)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8,5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또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7%,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5.9%,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4.4%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또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 여성의 식품 불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식품안정성 수준이 가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구성원들의 서열관계에 따라 구성원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Kim et al. 2011), 농촌지역의 여성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식품 불안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안정성은 영양소 섭취와도 관련성이 높으므로(Shim et al. 2008; Choe et al. 2009), 농촌 여성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또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주당 식품섭취 빈도에 대해 가구당 연평균 소득별로 비교한 결과, 고기·생선·계란·콩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는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3,000만원 이상그룹의 섭취 빈도가 3,000만원 미만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1).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곡류, 감자류 및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군에서 섭취량이 많았다고 하였다

(Moon & Kim 2004).

2010년도 한국인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따르면 성인 여자의 경우 고기·생선·계란·콩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를 각각 매일 4회, 2회, 1회 분량 섭취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1주일에는 7번을 섭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지역 농촌 여성의 경우 3가지 식품군 모두 7회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고기·생선·계란·콩류는 가장 자주 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섭취 빈도를 나타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과일류의 빈도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지역에 과수 농가가 많음으로 인해 과일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4. 주택형태와 주거시설

주택의 외형은 스라브 양육이 27.2%로 가장 많았고, 기타 양육이 25.6%, 기와 한옥 17.9%, 슬레이트 한옥 16.9%, 기타 한옥 6.7%의 순이었다. 농촌 생활지표조사보고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기타양육 비율은 25.9%로 전국 평균 16.5%보다 높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기타 양육의 비율이 높아 경북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드러냈다. 발암성 물질인 슬레이트를 사용한 한옥의 비율이 대구경북평균 15.8%보다 다소 높아 주민건강이 우려되며 지붕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엌은 재래식이 2.8%이고 입식과 절충형이 97.2%로 대구경북평균 재래식 비율 2.9%와 유사했다.

응답자 주택의 89.1%에는 온수목욕시설, 3.1%

Table 3. Weekly frequency of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Descriptive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F value
	<1,500	1,500~3,000	≥3,000	
Meat, fish, eggs, beans	1.61±2.13 <sup>a</sup>	1.79±1.57 <sup>a</sup>	2.58±2.74 <sup>b</sup>	6.835 <sup>**</sup>
Fruits	3.26±3.66 <sup>a</sup>	4.08±4.09 <sup>a</sup>	5.90±4.59 <sup>b</sup>	12.479 <sup>***</sup>
Milk and milk products	1.75±2.54 <sup>a</sup>	2.51±2.84 <sup>a</sup>	3.35±3.63 <sup>b</sup>	8.093 <sup>***</sup>

<sup>1)</sup> Mean±SD

<sup>ab</sup>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5 by a Duncan post-hoc test

<sup>\*\*</sup> p<.01, <sup>\*\*\*</sup> p<.001

에는 비 온수목욕시설이 있었고, 7.8%에는 목욕시설이 없었다. 온수목욕시설은 대구경북평균 92.1%보다 다소 낮으며, 목욕시설이 전혀 없는 비율도 대구경북평균 5.0%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목욕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절에 따른 온수목욕시설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 겨울(평균 2.92)이 봄가을(평균 3.37)보다 낮아(p<.001) 욕실 단열 강화의 필요성이 유추된다.

응답자 주택의 현제난방시설과 희망난방시설을 알아본 결과, 현제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 27.7%, 겸용보일러 21.4%, 심야전기보일러 21.4%, 연탄보일러 13.7%, 나무보일러 12.0%, 가스보일러 2.3%의 순이었다.

희망난방시설은 심야전기보일러 36.8%, 겸용보일러 18.6%, 나무보일러 15.2%, 가스보일러 13.3%, 기름보일러 7.8%의 순으로, 현제난방시설로 기름보일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농촌주택 난방시설은 유류가격 부담 증가 등으로, 기름보일러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의하면, 2004년 전국평균 74%였던 기름보일러는 2012년 52.2%로 줄고 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 등이 증가했다. 본 조사의 특이사항으로 나무보일러를 들 수 있다. 농촌주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무보일러에 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농촌생활지표조사(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2012)의 난방시설종류에 나무보일러는 없으므로 ‘기타’에 포함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나무보일러가 현재 난방시설 중 5위, 희망난방시설 중 3위를 차지하여 조사지역의 주된 난방시설의 하나로 드러났는데, 이 지역에 산지 및 과수원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응답자 주택의 난방시설, 부엌시설, 온수목욕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가구당 연평균소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연소득 1,500만원을 경계로 그 미만인 그룹보다 그 이상인 그룹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 5. 경제생활 수준과 만족도

조사지역 농촌여성의 생활비수준은 월 150만원 미만이 응답자의 64.2%로 가장 많았고 월 150만원 이상 월 300만원 미만이 29.8%였으며 응답자의 5.9%는 월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농촌여성의 소득만족도(평균 2.74)는 보통이 52.2%로 절반 이상이었고 불만족 33.8%, 만족 14.0%로 정상분포에서 불만족 쪽으로 약간 치우쳐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보고된 소득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불만족이 51.8%, 보통이 38.9%, 만족이 9.3%로서, 조사지역 농촌여성들의 소득만족도가 다른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 농촌여성의 소비만족도(평균 2.87) 역시 보통이 64.3%, 불만족이 23.4%, 만족이 12.3%로 소득만족도와 비슷하게 불만족 쪽으로 약간 치우쳐 분포하고 있었으나 소득만족도보다 보통

Table 4. Satisfaction of heating system, kitchen unit and bath equipment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Descriptive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F value
	<1,500	1,500~3,000	≥3,000	
Heating system	2.99±0.87 <sup>1),2)a</sup>	3.45±0.95 <sup>b</sup>	3.54±0.99 <sup>b</sup>	11.487 <sup>***</sup>
Kitchen unit	3.07±1.05 <sup>a</sup>	3.59±0.84 <sup>b</sup>	3.54±1.03 <sup>b</sup>	10.066 <sup>***</sup>
Hot water bath equipment	spring/autumn 2.97±1.05 <sup>a</sup>	3.43±0.91 <sup>b</sup>	3.60±0.94 <sup>b</sup>	12.794 <sup>***</sup>
	winter 2.46±1.15 <sup>a</sup>	3.03±1.13 <sup>b</sup>	3.16±1.11 <sup>b</sup>	12.217 <sup>***</sup>

<sup>1)</sup> Mean±SD

<sup>2)</sup> 1: strongly not satisfactory, 2: not satisfactory, 3: moderately satisfactory, 4: satisfactory, 5: strongly satisfactory

<sup>a,b</sup>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5 by a Duncan post-hoc test

<sup>\*\*\*</sup> p<.001

**Table 5.** Cost of living, income satisfaction, consumption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Descriptive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F value
	<1,500	1,500~3,000	≥3,000	
Cost of living	2.11±1.04 <sup>1),a</sup>	3.16±1.37 <sup>b</sup>	4.33±1.78 <sup>c</sup>	71.682 <sup>***</sup>
Income satisfaction <sup>2)</sup>	2.31±0.81 <sup>a</sup>	2.74±0.69 <sup>b</sup>	3.10±0.84 <sup>c</sup>	30.337 <sup>***</sup>
Consumption satisfaction <sup>2)</sup>	2.63±0.70 <sup>a</sup>	2.88±0.58 <sup>b</sup>	3.08±0.72 <sup>c</sup>	13.796 <sup>***</sup>
Job satisfaction <sup>2)</sup>	2.77±0.96 <sup>a</sup>	3.00±0.90 <sup>ab</sup>	3.15±0.94 <sup>b</sup>	4.904 <sup>**</sup>

<sup>1)</sup> Mean±SD

<sup>2)</sup> 1: strongly not satisfactory, 2: not satisfactory, 3: moderately satisfactory, 4: satisfactory, 5: strongly satisfactory

<sup>a,b,c</sup>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5 by a Duncan post-hoc test

<sup>\*\*</sup>p<.01, <sup>\*\*\*</sup>p<.001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으며 평균만족도에서 더 큰 값을 볼 때, 소득보다는 소비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소비생활이 소득수준 외적인 요소(자가소비를 위한 경작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지역 농촌여성의 직업만족도(평균 2.98)는 보통이 43.8%, 불만족이 27.2%, 만족이 29%로 비교적 정상분포를 하고 있으며 평균직업만족도가 소득과 소비만족도에서의 평균보다 큰 것으로 볼 때, 직업만족도는 소득 및 소비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5에 의하면 연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가 높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소득 및 소비 만족도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직

업만족도는 연평균소득이 1,500만원 미만그룹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한 반면에 3,000만원 이상그룹은 자신의 직업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농촌여성의 직업만족도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볼 때, 직업만족도는 농촌거주내지 농업관련 직업 자체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소득수준의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자녀양육

Table 6은 응답자의 양육효능감,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연평균소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알아본 것이다. 이 중 양육효능감(p<.05)과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가(p<.05)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만

**Table 6.** Parenting behaviors practices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Descriptive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F value
	<1,500	1,500~3,000	≥3,000	
Parenting efficacy	3.09±0.42 <sup>1),2)a</sup>	3.17±0.46 <sup>ab</sup>	3.25±0.49 <sup>b</sup>	3.703 <sup>*</sup>
Satisfaction of children's growth	3.35±0.89 <sup>a</sup>	3.45±0.82 <sup>ab</sup>	3.64±0.86 <sup>b</sup>	3.630 <sup>*</sup>
Husband's participation in parenting	2.99±0.96	3.19±0.92	3.23±1.07	1.919

<sup>1)</sup> Mean±SD

<sup>2)</sup> 1: strongly not satisfactory, 2: not satisfactory, 3: moderately satisfactory, 4: satisfactory, 5: strongly satisfactory

<sup>a,b,c</sup>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5 by a Duncan post-hoc test

<sup>\*</sup>p<.05



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육효능감의 경우 평균소득이 3,000만원 이상 그룹의 양육효능감이 1,500만원 미만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에 비해 소득수준이 더 높은 일반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 Chung et al.(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현재 자녀의 성장 모습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3,000만원 이상그룹이 1,500만원 미만그룹에 비해 현재 자녀의 성장 모습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이 높은 경우 농촌여성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7. 생활만족도의 설명 요인

소득 그룹별로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Table 2)에서는 1,500만원 미만그룹과 3,000만원 이상그룹 간에만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므로(p<.05),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1,500만원 미만그룹과 3,000만원 이상그룹만을 대상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

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서는 Table 2~Table 6에 사용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Table 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만 제시하였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500만원 미만그룹과 3,000만원 이상그룹에서 건강상태가 좋고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상태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500만원 미만그룹의 경우 부업시설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이 너무 낮으면 노후된 부업가구의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부업가구의 교체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0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가족의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3,000만원 이상그룹의 경우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정도가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다르게 결정하는데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Yearly household income (10 <sup>4</sup> won)			
	<1,500		≥3,000	
	β	t	β	t
Health condition	.33	2.77**	.34	4.01***
Frequency of fruit consumption	.01	.07	.29	3.64**
Satisfaction of kitchen unit	.26	2.23*	-.04	-.52
Job satisfaction	.41	3.48**	.20	2.22*
Parenting efficacy	.08	.57	.37	4.17***
Constant	.75		-.68	
R <sup>2</sup>	.40		.55	
Adjusted R <sup>2</sup>	.36		.52	
F	9.70***		18.30***	

\*p<.05, \*\*p<.01, \*\*\*p<.001

에 가치와 비중을 많이 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하여 농촌 여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1월~2월에 경북 북부의 5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의·식·주, 자녀양육, 경제 분야의 7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ANOVA, t-test, 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 중 가구당 연평균소득에 대해서는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의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 농촌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3,000만원 이상그룹이 1,500만원 미만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품안정성 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과일류 등 식품섭취 빈도는 3,000만원 이상그룹이 3,000만원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시설은 연평균 소득 1,500만원을 경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만족도는 농촌거주내지 농업관련 직업 자체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소득수준의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1,500만원 미만그룹과 3,000만원 이상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더위민감, 과일빈도, 부엌시설만족, 직업만족, 양육효능감을 들 수 있다. 또한 건강상태와 직업만족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부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녀양육효능감과 과일섭취

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부엌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은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교육과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후속연구에서 조사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JY(2001)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derson SA(1990) Core indicators of nutritional state for difficult-for-sample populations. *J Nutr* 120 (11S), 1559-1600
- Chang MS, Park KS(2012)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Soc Welf Rev* 32(2), 232-266
- Cho JS(201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environments of agricultural households by Eup · Myun area : Analyses of 2008 survey data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J Korean Home Manag Assoc* 29(3), 71-83
- Choe GR(2006) A study on the demand to support by Korean rural wome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6 Spring Conference
- Choe HS(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e JS, Ji SM, Park YH(2009) The association of household food insecurity with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nutrient intake in the elderly in rural area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1), 19-32
- Choi SJ(198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t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Korean Cult Stud* 49, 233-256
- Chung MR, Kwon JY, Lee MJ(2009) The comparison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cial competence, and parental self-efficacy by their family income.

- J Early Child Educ 29(6), 359-378
- Han J, Jeong KS, Lee JS(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ing desig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Yesan modernized model village. J Archit Inst Korea Plan Des 25(9), 87-94
- Jeong O(1991) Seasonal adaptation of rural residents with focus on clothing weight. J Korean Soc Cloth Text 15(4), 417-430
- Kim EK(2002) The effects of adult children related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male and female. J Korea Home Manag Assoc 20(4), 27-36
- Kim GH(2011) Th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J Korean Home Econ Assoc 49(5), 49-57
- Kim KR, Hong SA, Kwon SO, Choi BY, Kim GY, Oh SY(2011) Validation of food security measures for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n J Community Nutr 16(6), 771-781
- Ko JS, Park ES, Lee HK(2006) A study on the living changes of rural inhabitants in longitudinal case study villag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6 Fall Conferenc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Korea Health Statistics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Available from <http://knhanes.cdc.go.kr/> [cited 2013 October 15]
- Kwon SO, Oh SY(2007) Association of household food insecurity with socioeconomic measures, health status and nutrient intake in low income elderly. Korean J Nutr 40(8), 762-768
- Moon HK, Kim EG(2004) Food intake patterns of Koreans by economic status using 1998 Korea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Nutrition Survey. Korean J Nutr 37(4), 316-328
- Mun HJ(2003) A comparative study of satisfaction for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Korean J Child Stud 24(5), 59-75
- Park DS, Chung MC, Choi KH, Chae HY(2002) A study on developing welfare indices regarding female farmers. Korea Rural Econ Inst 77-78
- Park JG(2006) An analysis of female farmers' quality of living related to role expansion and their health management. J Rural Dev 28(4), 33-49
- Rose D(1999) Economic determinants and dietary consequences of food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J Nutr 129(2S), 517S-520S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0) 2010 Survey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1) 2011 Survey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2) 2012 Survey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 Shim JS, Oh KW, Nam JM(2008) Association of household food security with dietary intake - based on the third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 Korean J Nutr 41(2), 174-183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201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p542
- Yang SM(2004) A study on the relative happiness through gender in rural couples and the effect of family healthiness. J Family Reat 92(2), 153-172